

# 1천평 매장에 2천4백톤 물량 인터넷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올 1월 지류 유통시장에 뛰어든 (주)A.C.T.S(대표이사 유병옥)가 국내 외 각종 종이를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지류 유통 할인매장을 개장했다.

지난 4월1일 금천구 가산동에 개장된 할인매장은 1천평 규모로 2천 4백톤의 물량 보관이 가능한 지류유통 회사로선 국내 최대규모이다. 월 1만 5천톤 유통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할인 매장에는 스노우지, 백색모조지, 야트지, 미색모조지, 팬시지, 복사용지 등 국내 제품 외에도 각종 수입지류가 총 망라 되어있다.

유병옥 사장은 "(주)A.C.T.S가 직접 제지회사와 거래함으로써 많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중·소 도매업체와 나누려는 것이다. 중·소 종이 도매상들은 (주)A.C.T.S 매장만 찾으면 많은 회사의 종이를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A.C.T.S와 경쟁해야 하는 유통회사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목이지만 중·소 업체들로선 물류 창고 없이도 기존보다 종이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마련된 셈이다. 매장의 종이 보관 물량은 인터넷([www.actSCO.com](http://www.actSCO.com))을 통해 종이 도매상들에게 완전 공개된다. 중·소 도매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지류가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마우스를 누르는 것으로 주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A.C.T.S를 이용하면 인터넷 시설만 갖추고 있어도 종이 도매업 영업을 가능하다. 종이보관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매장에서 책임지면 되고, 배송센터를 통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종이를 원하는 기일에 납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택배를 통해 도매상이 원하는 회사에 종이를 납품해 주지만 트럭을 갖추고 있으면 택배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결제 방법이다. 기존에는 지류유통 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되곤 했지만 (주)A.C.T.S 매장에선 어음 결제가 불가능하다. 지류유통 시장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 사장은 "현금이 돈다는 건 도매상이나 (주)A.C.T.S, 제지메이커 모두가 건실한 경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win-win 게임이다. 처음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류 유통시장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고 현금 거

## 대형 지류 할인매장 개장

래를 당부했다. 5월말 현재 (주)A.C.T.S와 거래하는 회사는 120여 업체에 이른다.

유 사장은 “중·소 도매상의 입장에서선 현금거래가 다소 부담 될 수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반적인 비용을 회사가 책임져주고 있고, 기존 거래선과 비교되는 확실한 비용절감이 두 달만에 120여개 업체라는 거래선을 확보한 비결”이라고 짧은 시간에 이룩한 성과를 만족해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선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다. 제지 회사들이 '제조는 제조사가 유통은 유통회사'라는 (주)A.C.T.S의 기조에 순순히 따라 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실수요자인 인쇄업체에까지 (주)A.C.T.S의 신개념 유통 혜택이 미칠지도 관심 가는 대목이다.

(주)A.C.T.S는 고객 범위를 중·소 도매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인쇄업체는 제외된 상태이다. 인쇄업체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A.C.T.S와 중 소 도매상 사이에 발생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실수요자까지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제지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주)A.C.T.S도 중 소 도매상도 아닌 인쇄업체이기 때문이다.

(주)A.C.T.S는 자동차시트, 의류 등을 생산하던 (주)협진양행이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발한 회사이다. 30년의 섬유수출 경력과 10년의 자동차 시트카바 생산과 함께 유사장이 취임하면서 지류 유통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포함됐다. 지류 유통업계 후발주자가 분명하지만 유병욱 삼원지류 사장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만큼 삼원지류의 경력이 그대로 옮겨져 관련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



◆ 지류유통의 일대혁신을 목표로 ACTS대표이사(위)에 취임한 삼원지류의 유병욱 사장

〈이용우 기자〉

인쇄용지상식	
<p><b>Q</b> 인쇄물에 줄이 발생하는 이유는?</p> <p><b>A</b> 인쇄물에 발생하는 줄은 원지의 줄로 인하여 인쇄 후 발생하는 것과, 인쇄과정에서 블랭킷에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인쇄되지 않은 줄이 발생할 수 있다. 용지 원지에서 줄이 발생했을 경우는, 종이 생산 공정 중 도공과정에서 도공액을 제어하는 Blade에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발생하거나, 용지를 재단하는 과정에서 불균일한 압력으로 발생 할 수 있다.</p> <p>용지에 줄이 발생한 종이는 한쪽 면만 인쇄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재단하여 사용하면 용지를 클레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줄은 블랭킷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 쉽게 해결된다. 참고로 용지 자체</p>	<p>의 문제로 발생하는 줄은 원지를 보면 선명한 줄 자국이 있으므로 인쇄시 발생하는 줄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p> <p><b>Q</b> 인쇄시 그림자 얼룩 원인은?</p> <p><b>A</b> 인쇄가 진행되는 동안 용지가 투입되는 가로 방향으로 배열된 그림이 다른 그림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 민판 부분 가까이에서 띠 모양의 화선을 배치했을 때에 더욱 눈에 띈다. 원인은 잉크 문헌 롤러에서 판면의 잉크공급량과 소모량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생기게 된다. 따라서 롤러위에서 잉크가 잘 분배되도록 해야한다.</p>